中國語文學 第44輯(2004. 12) 157-183 쪽

≪孟子≫"王無異於百姓之以王爲愛也"句 解釋 商榷*

韓 學 重**

<目 次>

Ⅰ. 머리말
Ⅱ. 기존의 견해들
Ⅲ. '異'와 '異於'의 구별
Ⅳ. '無'의 詞性에 대한 검토와 앞뒤의 의미 맥락
Ⅴ. 맺는 말

Ⅰ. 머리말

≪孟子≫를 볼 때마다 <梁惠王章句上> 「齊桓晉文」章에 이르면 전통적인 해석에 매번 고개가 갸우뚱거려져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구절이 몇 군데 있다. 그 가운데 하나는 "無以則王乎"句이고, 또 하나는 "王無異於百姓之以王爲愛也."句이다. 이 글은 "無以則王乎"句 고찰[1]에 이어, 특별히 "王無異於百姓之以王爲愛也"에 대하여 그 전통적인 해석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달리 해석될 여지는 없는지, 그렇다면 원문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며, 나아가 孟子의 사상을 이해하

* 이 글은 「≪孟子≫"無以則王乎"句 新譯」이라는 제목으로 嶺南中國語文學會 2004년도 하반기(2004.9.18, 계명대학교) 전국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토론과정에서 금과옥조같은 참고를 제공해주신 김종찬, 이강재, 이세동, 이의활 교수 등께 충심으로 감사드린다.

** 永進專門大學 國際觀光系列 전자우편: hanhak@yjc.ac.kr

1) "無以則王乎"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은 "그치지 말라고 하시면, 왕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풀이하였으나, 필자는 이를 반힐문으로 간주하고, "들리는 바가 없다면, 왕이겠습니까?"로 해석하였다. (韓學重, <≪孟子≫"無以則王乎" 新解>, ≪中國學論叢≫第17輯, 韓國中國文化學會, 2004.6.30)

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제공하기 위하여 작성된다.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먼저 본 구절이 속해있는 《孟子》<梁惠王上>「齊桓晉文」章의 원문을 보인다.

齊宣王問曰, "齊桓晉文之事可得聞乎?"

孟子對曰, "仲尼之徒無道桓文之事者, 是以後世無傳焉, 臣未之聞也. 無以則王乎?"

曰, "德何如則可以王矣?"

曰, "保民而王, 莫之能禦也."

曰, "若寡人者, 可以保民乎哉?"

曰, "可."

曰, "何由知吾可也?"

曰, "臣聞之胡齕, 曰, 王坐於堂上, 有牽牛而過堂下者, 王見之, 曰, '牛何之?' 對曰, '將以釁鐘.' 王曰, '舍之! 吾不忍其觳觫若無罪而就死地.' 對曰, '然則廢釁鐘與?' 曰, '何可廢也? 以羊易之!' — 不識有諸?"

曰, "有之."

曰, "是心足以王矣. 百姓皆以王爲愛也, 臣固知王之不忍也."

王曰, "然, 誠有百姓者. 齊國雖褊小, 吾何愛一牛? 卽不忍其觳觫若無罪而就死地, 故以羊易之也."

曰, "**王無異於百姓之以王爲愛也**. 以小易大, 彼惡知之? 王若隱其無罪而就死地, 則牛羊何擇焉?"

王笑曰, "是誠何心哉? 我非愛其財而易之以羊也, 宜乎百姓之謂我愛也."

齊나라 宣王이 물어 말하기를, "齊나라 桓公과 晉나라 文公의 일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孟子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仲尼의 제자에는 桓公과 文公의 일을 말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후세에 전하는 것이 없으니, 신이 듣지 못했습니다. 전하는 바가 없다면 왕이겠습니까?"

제선왕이 말하기를, "德이 어떠해야 왕이 될 수 있습니까?"

맹자가 말하기를, "백성들을 보살피면서 왕노릇을 하면, 막을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제선왕이 말하기를, "과인같은 자도 백성들을 보살필 수 있겠습니까?"

맹자가 말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선왕이 말하기를, “무슨 이유로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까?”

맹자가 말하기를, “臣이 胡齕에게 들었는데, 그가 말하기를 ‘王이 堂上에 앉아계셨는데, 소를 끌고서 堂下를 지나는 자가 있었답니다. 王께서 그것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牛는 어디로 가는고?’ 하니, 대답하여 말하기를, ‘釁鐘에 쓰려고 합니다.’ 王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버려라! 내가 그것이 벌벌 떨 듯이 죄없이 죽음터로 가는 것을 참지 못하겠노라.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러면 釁鐘을 그만두리이까?’ 말씀하시기를, ‘어찌 그만두겠는가? 양으로써 그것을 바꾸라’고 하셨다는데,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있습니까?”

말씀하시기를, “있습니다.”

말하기를, “이 마음이면 족히 왕이 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모두 왕이 아까워한다고 여깁니다만, 신은 진실로 왕께서 참지 못하심을 압니다.”

왕이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진실로 백성들이 의심할 만한 바가 있습니다. 제나라가 비록 작기는 하지만, 내가 어찌 소 한 마리를 아끼겠습니까? 곧 그것이 벌벌 떨 듯이 죄 없이 죽을 곳으로 가는 것을 참지 못하여, 그래서 양으로써 그것을 바꾸라고 하였습니다.”

말하기를, “(?) 작은 것으로 큰 것을 바꾸었으니, 저들이 어찌 알겠습니까? 왕께서 만약 그것이 죄 없이 죽을 곳으로 가는 것을 측은하게 여기셨다면, 소와 양은 어떻게 가리셨습니까?”

왕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이것은 진실로 무슨 마음이었던고? 내가 그 재물을 아껴서 그것을 바꾸는 것을 양으로 하라고 한 것은 아닌데. 백성들이 나를 인색하다고 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王無異於百姓之以王爲愛也”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왕께서는 백성들이 왕께서 인색하다고 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2]로 해석한다. ≪孟子≫의 대표적 주석서인 ≪孟子正義≫와 ≪孟子集注≫가 모두 ‘異’를

2) 韓相甲 譯, ≪朱熹 / 孟子·大學 — 四書集註II ≫, 서울: 三省出版社, 1977年8版發行(1976年初版), 28쪽.
중국어로는 또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王不要怪百姓們說王吝嗇.” (張兆瑢·沈元起編譯 ≪白話孟子讀本≫, 上海: 廣益書局, 民國三十五年)

‘怪’로 풀이하였고,[3] 후대의 거의 모든 주석서들이 이 견해를 그대로 채용하였다. 따라서 《孟子》를 처음 보는 초학자들은 이 부분에 이르면 특별히 ‘異’는 ‘怪’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음을 명심해야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王無異於百姓之以王爲愛也.”는 곧 “왕께서는 백성들이 왕을 인색하다고 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라는 뜻으로 보편화 상식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에서 필자가 문제삼고자 하는 것은 바로 ‘異’를 ‘怪’로 풀이해야 한다는 전통적 해석이다. 필자는 이 구절에서 특별히 ‘異’를 ‘怪’로 해석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느끼지 못하며, 古代漢語의 보편적 어법상식적인 측면에서 자못 파격적인 것으로 인지한다. 원문의 앞뒤 상황으로 보아 그러한 해석이 거슬리지 아니하고, 단지 옛날부터 그렇게 풀이해 왔으니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전혀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나, 경우가 보편적인 인식을 거부할 만큼 특이하다면, 여기에는 반드시 까닭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막연히 앞뒤 문맥으로 보아 거슬림이 없다고 하여 보편적인 언어질서를 무시하고 파격을 이룬다면, 여기에는 분명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필자의 우견으로, 이 구절의 전통적 견해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문제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곧 ‘異’와 ‘於’를 유기적 결합체가 아닌, 별개의 존재로 여겼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형용사 ‘異’를 동사로의 활용으로 여겨 意動動詞化했으며, 介詞 ‘於’의 존재를 무시하여, 결국 ‘百姓之以王爲愛’를 ‘異’의 목적어로 여기고 만 것이다. 그렇다보니, 앞의 부정소 ‘無’는 권유를 나타내는 금지부사로 여기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필자는 “王無異於百姓之以王爲愛也.”에서 ‘異’는 ‘同異’의 ‘異’로 해석되

3) 淸阮元校刻, ≪十三經注疏≫(孟子注疏解經 孫奭疏), 北京: 中華書局, 1987年第4次印刷(1980年第1版), 2670쪽.
“異, 怪也.” (‘異’는 ‘괴이하다, 이상하다’는 뜻이다.)
≪孟子集註大全≫, ≪經書≫(影印本), 서울: 成均館大學校大同文化硏究院, 1970, 465쪽.
“異, 怪也.” (‘異’는 ‘괴이하다, 이상하다’는 뜻이다.)

어야 옳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우리의 보편적인 古代漢語 상식에 따르면, '異' 후면에 '於'가 연용되는 경우, 그것은 거의 관용적으로 '…와 다르다'로 해석되는 것이 통례이며, '於'가 '異' 후면에 위치하여 동사의 목적어를 연계하는 개사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어법적으로 도저히 용납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孟子나 ≪孟子≫의 찬술자 또한 그러한 일반적 관용에 따라 이를 말하고 기록했을 것임도 자명하다. ≪孟子≫란 인위적인 언어기교를 거부한 散文이며, 따라서 당시의 보편적 언어습관에 따라 기록한 보통 문장이라는 점에서 상식을 좇았을 것임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王無異於百姓之以王爲愛也"를 "왕의 행위는 백성들이 왕을 인색하게 여기는 바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로 해석하고, '異'가 왜 '同異'의 '異'로 해석되어야 하는지와 개사 '於'의 존재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 글에서는 ≪孟子≫와 ≪孟子≫를 전후하여 출현한 先秦散文에서의 '異於'의 쓰임과 '怪이상하다)'라는 개념으로 사용된 '異'의 용례를 살펴보고, "王無異於百姓之以王爲愛也."에서 '異於'를 '…와 다르다'로 해석할 경우, 앞뒤 문맥 및 이 구절에 담긴 孟子의 또 다른 의중의 존재여부를 함께 고찰한다.

Ⅱ. 기존의 견해들

"王無異於百姓之以王爲愛也."에 대하여, ≪孟子正義≫와 ≪孟子集注≫ 및 국내외의 거의 모든 주석서는 '異'를 '怪'로 풀이하고, '百姓…'를 '異'의 목적어로 간주하고 있다. 먼저 국내에서 출판된 제가의 해석을 보인다.

[栗谷諺解] 王無異於百姓之以王爲愛也ᄒᆞ쇼셔
王은百姓의王으로ᄡᅥ앗기시다ᄒᆞᆫ ᄆᆞᆯ괴이히녀기디마 ᄅᆞ쇼셔 4)
(왕은 백성의 왕이 아끼시다 함을 이상히 여기지 마소서)

4) ≪四書栗谷諺解≫, 京畿: 弘文閣(影印), 1984 年.

‘無’를 권유성 금지부사로 여기고, ‘異’를 동사, ‘百姓之以王爲愛’를 ‘異’의 목적어로 여겼다. ‘於’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존재 자체를 무시한 것으로 보인다.

[孟子諺解] 王은百姓이王으로써愛ᄒᆞ다홈을異히너기디말ᄋᆞ쇼셔[5]
(왕은 백성이 왕을 아낀다고 함을 이상히 여기지 마옵소서)

栗谷의 해석과 다름이 없다.

[李範奎] 王안無異於百姓之以王爲愛也하쇼셔 / [대문푼것] 왕(王)은, 백성이, 왕(王)으로써, 앗긴다함을, 괴이(怪異)히역이지, 말으쇼셔. / [글자푼것] 異난, 怪異함이오, / [글뜻푼것] 왕(王)은, 백성이, 왕(王)으로써, 앗기고, 린색하다, 함을, 괴이하게, 생각하지, 마르소셔[6]

역시 전통적인 해석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車柱環] 왕께서는, 백성들이 왕께서 소를 아까워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괴이쩍게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 無…禁戒를 나타내는 부사. …하지 말아라. 異(이)…괴이쩍게 여김 趙注‥異,怪也.[7]

‘無’를 금지 부사로 여기고, ‘百姓之以王爲愛’를 의동동사 ‘異’의 목적어로 간주하였다. ‘於’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다. 존재 자체를 무시한 것으로 보인다.

[韓相甲] 왕께서는 백성들이 왕께서 인색하다고 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8]

5) 孟子諺解(奎1886) 宣祖(朝鮮)命撰
6) 李範圭 著作, ≪맹자언해 諺解孟子(上)≫, 京城府: 文言社, 昭和七年, 51 쪽
7) 車柱環, ≪東洋古典③ 孟子(上)≫, 서울: 明文堂, 1975 年六版(1970 年初版), 105 쪽

KCI

8) 韓相甲 譯, ≪朱熹 / 孟子·大學 — 四書集註II ≫, 서울: 三省出版社, 1977年8版發行(1976年初版), 28쪽.

역시 '異'를 '怪(이상하다)'는 동사로 보고, '百姓…'을 그 목적어로 처리하였다. '於'에 대해서는 또한 무시한 듯이 보인다.

[李家源] 왕께서는 그런 평을 이상하게 생각하실 것은 없습니다.[9)]

'異'를 '이상하게 생각하다'는 의동동사로 여긴 것은 전통적인 해석과 차이가 없으며, 역시 개사 '於'의 존재를 무시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히 '無'를 '없다'로 해석하여, 소유동사의 부정형태로 풀이한 점이 주목된다.

[洪寅杓] 왕은 백성들이 왕을 인색하다고 여긴 것을 이상하다 마십시오.
(주) 於: 介詞 ~에 대하여, ~에 있어서[10)]

특별히 '於'를 '-대하여', '-에 있어서'로 풀이하였으나, 원문 해석에서는 이를 살려내지 못하였다. 여전히 '異'와 '百姓之以王爲愛'를 동사 목적어 관계로 처리하였다.

"王無異於百姓之以王爲愛也"에 대한 위의 번역들은 부분적인 표현만 다를 뿐, 그 의미는 대동소이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李家源의 '無'를 부정형태의 소유동사로 여긴 것과, 洪寅杓 교수의 '於'에 대한 주석 부분이 주목할 만한 하나, 원문에 대한 전체적인 해석은 여전히 큰 궤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부정소 '無'를 권유성 禁止副詞로 여긴 것이나, '異'를 '이상하다'는 의동동사로 여긴 것이나, 介詞 '於'의 존재를 무시한 것이나, '百姓之以王爲愛'를 '異'의 목적어로 여긴 것등이 모두 그러하다.

그러나 우리는 "王無異於百姓之以王爲愛也"에서 왜 '異'가 '怪'로 해석되어야 하고, '於'의 존재가 무시되어야 하며, '無'를 금지부사로 여겨야 하

9) 李家源 譯解, ≪論語 孟子≫, 서울: 東西文化社, 1976, 232쪽.
10) 洪寅杓 編著, ≪孟子 대학고전총서⑧≫,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2, 66쪽.

는지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설명을 얻지 못하고 있으며, 더욱이 ‘百姓…’를 ‘異’의 목적어로 처리한 부분에 이르러서는, 한문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거의 통상적인 언어규칙을 무시한 것으로 여겨진다.

전통적인 이러한 견해는 중국과 일본 등지에서 출판된 ≪孟子≫의 거의 모든 주석서에서도 예외가 없는 듯이 보인다.

> [趙岐注] 異, 怪也. …… 孟子言無怪百姓謂王愛財也. 見王以小易大故也.[11]
> (異는 괴이하다(怪)는 것이다. …… 孟子가 ‘(王은) 百姓들이 王이 재물을 아낀다고 하는 것을 괴이하게 여길 것이 없다’고 말하였다. 왕이 작은 것으로써 큰 것을 바꾸었기 때문이다.)

‘於’의 존재를 무시하고, 아예 ‘百姓謂王愛財’를 직접 ‘無怪’의 후면에 위치시켜 이를 동사 목적어 관계로 처리하였다. 다만 趙岐의 해석에서 주목되는 것은 ‘無’를 금지부사로 풀이해야 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12]

> [焦循疏] 注「異, 怪也.」 ○ 正義曰..昭公二十六年左傳云「然據有異焉」賈氏注云..「異, 猶怪也.」史記魯世家「有異焉」, 集解引服虔云.「異, 猶怪也.」是異之義與怪同也.[13]
> (‘趙岐注’에서 ‘異’는 ‘怪’라고 하였다. ○ 正義에 이르기를. 昭公 二十六年 ≪左傳≫에「然據有異焉」이라고 하였는데, 賈氏는 注하여「‘異’는 ‘怪’와 같다.(異, 猶怪也.)」라고 하였고, ≪史記≫<魯世家>의「有異焉」에 대하여,

11) 淸阮元校刻 ≪十三經注疏≫(孟子注疏解經 孫奭疏), 北京: 中華書局, 1987年第4次印刷(1980年第1版), 2670쪽.

12) 이러한 논거는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 “見王以小易大故也”를 보면 명확해진다. “왕이 작은 것으로써 큰 것을 바꾸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라는 이 말을 보면, 앞의 ‘無異’를 ‘…마십시오.’로 표현하는 것은 직관적으로 어색해 보인다. “…을 이상히 여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라고 해야 말이 비로소 순조로운 것이다. 한편, 이 趙岐의 注에서 ‘於’를 누락시킨 것은, 후대 주석가들이 ‘異’와 ‘百姓…’를 동사 목적어 관계로 처리하게 하는 단서를 제공한 듯하며, 나아가 ‘無’를 ‘…말라’는 금지부사로 여기는 여지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13) 十三經淸人注疏 ≪孟子正義≫, 焦循撰, 沈文倬點校, 北京: 中華書局, 1987.

≪集解≫는 服虔의 견해를 인용하여 「'異'는 '怪'와 같다.(異, 猶怪也)」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異'의 뜻이 '怪'와 같다는 것이다.)

趙岐의 견해에 따라 역시 '異'를 '怪'로 풀이하고, 그 근거로 ≪左傳≫과 ≪史記≫의 예를 들고 있다. 역시 개사 '於'의 존재와 '無'의 詞性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孫奭疏] 孟子對宣王言無怪百姓皆謂我爲愛財也.14)
(孟子가 宣王을 보고, "百姓들이 모두 내가 재물을 아낀다고 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길 것은 없습니다."라고 말하였다.)

趙岐의 견해를 그대로 수용하였으나, 두 번째의 '王'을 '我'로 바꾸어 놓았다. 孟子가 한 말이라는 점에서 '王'을 '我'로 표기한 것은 무리일 수 있다. 화법상 약간의 혼란이 있었던 듯하다. 역시 '無'를 반드시 금지부사로 여겨야 하는 것은 아니다.15)

[補注備旨]【註】異, 怪也.【講】孟子難之曰, 王無怪乎百姓之以王爲愛也.16)
(【註】'異'는 '怪'이다. 【講】맹자가 비난하며 말하기를, 왕께서는 백성들이 왕을 인색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 이상하게 여길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於'를 '乎'로 풀이하였다. '乎'를 '百姓之以王爲愛'와 관련시켜 '對於'(…대하여)의 개념으로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王無怪'와 관련시켜 "宜乎百姓之謂我愛也."(마땅하도다! 백성들이 나를 인색하다고 하는 것이.)의 경우와 같이 어기조사로 사용한 것인지가 확실하지 않다. 원문의 '於'를

14) 淸阮元校刻 ≪十三經注疏≫(孟子注疏解經 孫奭疏), 北京: 中華書局, 1987年第4次印刷(1980年第1版)
15) 이 구절만 보면, "…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라는 표현 또한 가능하다. 그러나 趙岐의 견해를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을 이상하게 여길 것은 없습니다."로 표현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된다.
16) 明 鄧林著, ≪四書補註備旨≫(東昌書業德藏板), 中華民國元年重刊.

감안하면 전자로 사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원문은 "백성들이 왕을 인색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 이상하게 여길 것이 없습니다."라는 해석이 가능하며, 유일하게 '於'의 존재를 고려한 해석이 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鄧林의 ≪四書補註備旨≫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앞의 '孟子難之' 부분이다. 孟子가 齊宣王을 일정부분 비난하며 말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無'를 금지부사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근거를 제공한다.

[集注] 異, 怪也.[17]
('異'는 '怪'이다.)

'異'와 '百姓之以王爲愛'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張兆璐] 王不要怪百姓們說王吝嗇 / (주) 異 怪[18]
(왕께서는 백성들이 왕을 인색하다고 말하는 것을 괴이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無'를 '不要'로 풀이하여 금지부사로 여기고, '百姓之以王爲愛'를 '異'의 목적어로 처리하였다.

[楊伯峻] (譯文) 百姓說王吝嗇, 王也不必奇怪. (注) 異 — 動詞, 奇怪, 疑怪.[19]
(백성들이 왕을 인색하다고 말하는 것을, 왕께서는 또한 이상하게 여기실 필요가 없습니다.) (注) 異 — 동사로서, 이상하다(奇怪), 괴이하다(疑怪)는 뜻이다.

'百姓之以王爲愛'를 주제화하여 문두에 전치시켰다. '異'는 동사로 보았

17) ≪經書≫(影印本), 서울: 成均館大學校大同文化硏究院, 1970.
18) 張兆璐·沈元起編譯 ≪白話孟子讀本≫, 上海: 廣益書局, 民國三十五年.
19) 楊伯峻譯注, ≪孟子譯注≫, 北京: 中華書局, 1960.

으나, '無'에 대해서는 금지부사로 여기지 않았다.

[謝冰瀛] 王對於百姓們認爲王太吝嗇這一點, 也不要奇怪啊 / (주) 異, 怪也.[20]
(왕께서는 백성들이 왕을 너무 인색하다고 여기는 이 점에 대하여, 또한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특별히 '於'를 '對於'로 풀이하고, '於百姓之以王爲愛'를 對待關係로 처리하였다. '於'의 존재를 중시한 것이 돋보인다. ' 無는 여전히 금지부사로 처리하였다.

[高步瀛] 趙曰, 異怪也.[21]
(趙岐가 '異'는 '怪'이다라고 하였다.)

趙岐의 견해를 따랐다.

[內野熊一郎] 王百姓の王を以て愛しめりと爲すを、異しむこと無かれ。/ 無異: 「怪しむ勿れ」と同意である。[22]
(왕은 백성들이 왕을 인색하다고 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 無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와 동의이다.)

여전히 '無'는 금지부사, '異'는 '이상하게 여기다'로 해석하고, '於'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존재 자체를 무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기존의 주석서는 모두가 '異'를 '怪'로 풀이하였

20) 謝氷瑩・李鍾・劉正浩・邱燮友編譯, ≪新譯四書讀本≫, 臺北: 三民書局, 民國六十七年.
21) 高步瀛集解・吳闓生評點, ≪重訂孟子文法讀本≫, 臺北: 學海出版社, 民國七十年.
22) 內野熊一郎, 新譯漢文大系4≪孟子≫, 東京: 明治書院, 昭和59年35版/昭和37年初版, 39쪽.

다. ‘無’에 대해서는 趙岐, 焦循, 孫奭, 鄧林 등은 존재동사로 여긴 것으로 보이나, 후대로 오면서 금지부사로 여기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관련하여 여기에서 분명히 할 것은 기존 주석서의 중요한 오류 중의 하나로 거의 모두가 개사 ‘於’의 존재를 경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직 ≪補注備旨≫의 “孟子難之曰, 王無怪乎百姓之以王爲愛也.”와 謝冰瑩의 “王對於百姓們認爲王太吝嗇這一點, 也不要奇怪啊.”, 洪仁杓 教授의 注釋“於 介詞 ~에 대하여, ~에 있어서” 만이 ‘於’의 쓰임을 고려하고 있을 뿐, 이들을 제외하면 아예 ‘於’에 대한 언급은 물론 존재조차 무시하고 있다. 주석과 해석에서 모두 ‘於’의 존재를 무시하면서, ‘異’를 ‘의동동사’의 활용으로 간주하고, ‘百姓之以王爲愛’를 ‘異’의 목적어로 여긴 것이다.

필자는 “王無異於百姓之以王爲愛也.”의 경우, ‘於’의 존재는 결코 홀시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한다. 개사 ‘於’는 고대한어에서 결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만큼 그 존재가 무의미한 단어가 아니다. 특별히 방면이나 비교, 대상을 나타내는 경우 그 쓰임은 거의 필수적이며, 이는 형용사 ‘異’의 경우에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또 ‘於’가 동사와 그 목적어 사이에 쓰여 동사의 목적어를 강조하는 기능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몇몇 동사에 국한되는 지극히 제한적인 것이었다.[23] “王無異於百姓之以王爲愛也.”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이 문제가 되는 것도 이 개사 ‘於’의 존재를 홀시한 데에서 기인한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王無異於百姓之以王爲愛也.”가 “왕의 행위는 백성들이 왕을 인색하다고 여기는 바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이제 여기에서는 이러한 해석의 근거로, ‘異’의 사전적 의미와 先秦散文에 사용된 ‘異於’의 쓰임을 살펴본다.

23) 본고 “Ⅲ. ‘異’와 ‘異於’의 구별” 참조.

Ⅲ. '異'와 '異於'의 구별

사실 '異'가 '怪'의 개념을 지니는 것으로 여기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釋名≫<釋天>에서 "'異'는 평상적인 것과 다른 것이다.(異者, 異於常也.)"라고 하였고, ≪論衡≫<自紀>에도 "사물이 비슷함이 없고, 멋대로 생겨나는 것을 괴이하다고 한다."(物無類而妄生曰異.)라고 하였다.[24] 또 선진산문에서 '異'가 '怪'로 해석되는 경우도 흔히 있는 일이다. ≪中文大辭典≫ '異'字條의 14 조목 해석 가운데 그 일곱 번째 조목에 '괴이하다'(怪異也.)는 풀이를 제시하고, 다음을 예문으로 들고 있다.[25]

(1) 然據有**異**焉. (≪左傳≫<昭公二十六年>) / 賈氏注云.「異, 猶怪也」
(그러나 梁丘據에게는 이상함이 있습니다.) / 賈氏注에 "'異'는 '怪'와 같다"라고 하였다.

(2) 化爲**異**物兮, 又何足患? (≪史記≫<屈原賈生列傳>
(이상한 물체로 변한다고 해도, 또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3) 有**異**焉. (≪史記≫<魯世家>) / 集解引服虔云.「異, 猶怪也.」
(괴이함 있다.) / 集解에는 服虔의 견해를 인용하여 "'異'는 '怪'와 같다"라고 하였다.

이와 함께 ≪孟子≫에도 '異'가 '이상하다'는 뜻으로 사용된 경우로 다음의 예들이 보인다.

(4) 夫子加齊之卿相, 得行道焉, 雖由此霸王, 不**異**矣. 如此, 則動心否乎?
(≪孟子≫<公孫丑上>)
(선생님께서는 제나라의 卿相을 더하여 도를 행할 수 있다면, 비록 이

24) 中文大辭典編纂委員會(林尹 高明主編), 中文大辭典, 大北: 華岡出版有限公司, 中華民國68年第4版(中華民國62年初版)에서 재인용.
25) 中文大辭典編纂委員會(林尹 高明主編), 中文大辭典, 大北: 華岡出版有限公司, 中華民國68年第4版(中華民國62年初版), 9458쪽.

것으로 말미암아 패왕이 된다고 할지라도,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할 수 있다면, 마음을 움직이겠습니까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5) **異**哉! 子叔疑. (≪孟子≫< 公孫丑下>)
(이상하도다! 子叔疑여)

(6) 我欲行禮, 子敖以我爲簡, 不亦**異**乎? (≪孟子≫< 離婁下>)
(나는 예를 행하고자 하는데, 子敖가 나를 두고 소홀히 한다고 하니, 또한 이상하지 아니한가?)

(7) 王勿**異**也. 王問臣, 臣不敢不以正對. (≪孟子≫<萬章下>)
(왕께서는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왕께서 신에게 물으니, 신은 감히 바른 것을 대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로부터 본다면, ‘異’가 ‘이상하다’로 해석되는 것은 매우 정상적인 쓰임이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異’가 모두 단독으로 사용되었으며, 후면에 개사 ‘於’를 수반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우리가 “王無異於百姓之以王爲愛也”에서 ‘異’를 ‘怪’로 해석하여 동사의 활용으로 여길 수 없다는 까닭도 바로 이 점에 있다. ‘異’의 후면에 특별히 개사 ‘於’가 쓰이고 있다는 사실은 ‘異’가 ‘이상하다’는 개념으로 쓰인다는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며, 重義性을 방지하려는 하나의 제약으로서 古代漢語의 통상적인 어법규칙인 것이다. 언어란 이렇게 유기적인 결합에 의해 약정되는 것이다.

필자의 조사에 따르면, 先秦散文에서 ‘於’가 동사와 그 목적어 사이에 사용되어 특수한 용법으로 동사의 목적어를 강조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기는 하였지만, 그것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於’는 단지 ‘見’·‘觀’·‘明’·‘察’·‘改’·‘悅’·‘稱’·‘惡’·‘盡’·‘朝’·‘免’ 등과 같은 타동사의 후면에 위치하여, 그 목적어를 강조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었으며, 그러한 기능 또한 개사 ‘於’의 본래 의미인 처소성에서 인신된 것이었다.[26]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면, “王無異於百姓之以王爲愛也”에서 ‘無異於…’가 ‘…을 이상히 여기

26) 韓學重, <古代漢語 ‘見於’와 관련한 介詞 ‘於’의 특수용법>, ≪中國言語研究≫ 第17輯, 韓國中國言語學會, 2003.6.30.

지 마십시오'로 해석된다는 것은 古代漢語의 언어규칙을 철저하게 파괴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異'의 사전적 의미는 매우 다양하지만, 先秦散文에서 그것이 후면에 '於'를 수반한 경우 그것은 거의 필연적으로 '…와 다르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을 뿐이다. 다음은 《孟子》에 사용된 '異於'의 예이다.

(8) 是何**異於**刺人而殺之曰'非我也, 兵也,' (≪孟子≫< 梁惠王上>)
(이것이 어찌 사람을 찔러 죽이고서 '내가 아니고, 무기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겠습니까?)
(9) 以一服八, 何以**異於**鄒敵楚哉? (≪孟子≫< 梁惠王上>)
(하나로서 여덟을 복종시킨다는 것이 어찌 추나라가 초나라에 대적하는 것과 다르겠습니까 ?)
(10) 今有璞玉於此, 雖萬鎰, 必使玉人彫琢之, 至於治國家, 則曰 '姑舍女所學而從我', 則何以**異於**敎玉人彫琢玉哉?" (≪孟子≫< 梁惠王下>)
(이제 여기에 박옥이 있으면, 비록 만 일일지라도 반드시 옥공으로 하여금 다듬게 할 것이나, 나라를 다스림에 이르러서는 곧 '잠시 그대가 배운 바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한다면, 어찌 옥공에게 옥을 다듬는 것을 가르치는 것과 다르겠습니까?)
(11) 何以**異於**是?" (≪孟子≫< 公孫丑下>)
(어찌 이와 다르겠습니까?)
(12) 今也南蠻鴃舌之人, 非先王之道, 子倍子之師而學之, 亦**異於**曾子矣. (≪孟子≫<滕文公上>)
(이제 남쪽 미개민족의 왜가리같은 혀를 가진 사람이 선왕의 도를 비난하는데도, 그대는 그대의 스승을 배반하고 그에게 배우니, 또한 증자와는 다른 것입니다 .)
(13) 人之所以**異於**禽獸者幾希, 庶民去之, 君子存之 (≪孟子≫< 離婁下>)
(사람이 금수와 다른 점은 극히 드무니, 일반사람들은 그것을 버리고, 군자는 그것을 지닌다 .)
(14) 君子所以**異於**人者, 以其存心也 (≪孟子≫< 離婁下>)
(군자가 일반 사람들과 다른 것은 그 마음을 보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15) 王使人瞯夫子, 果有以**異於**人乎? (≪孟子≫< 離婁下>)

(왕이 사람을 시켜 선생님을 엿보게 하였는데, 과연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까?)

(16) 何以**異於**人哉? 堯舜與人同耳. (≪孟子≫<離婁下>)
(어찌 다른 사람들과 다르겠는가? 요순 임금도 다른 사람들과 같을 뿐이다.)

(17) 異於白. 馬之白也, 無以**異於**白人之白也, 不識長馬之長也, 無以**異於**長人之長與? (≪孟子≫<告子上>)
(흰 것과는 다르다. 말이 흰 것은 흰 사람이 흰 것과 다를 것이 없겠으나, 모르기는 하겠네만, 나이 많은 말의 나이 많음이 나이 많은 사람의 나이 많음과 다름이 없겠는가?)

(18) 耆秦人之炙, 無以**異於**耆吾炙, 夫物則亦有然者也. (≪孟子≫<告子上>)
(진나라 사람의 구운 고기를 좋아하는 것은 나의 구운 고기를 좋아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으니, 대저 사물이란 또한 그러한 것이 있는 것이다.)

(19) 舜之居深山之中, 與木石居, 與鹿豕遊, 其所以**異於**深山之野人者幾希. (≪孟子≫<盡心上>)
(순임금이 깊은 산중에 살 때는 나무나 바위와 더불어 살고, 사슴이나 멧돼지와 더불어 노닐며, 그가 깊은 산중의 야인과 다른 점은 거의 없었다.)

위의 ≪孟子≫의 예에서 보듯이 '異'가 개사 '於'와 연용되는 경우, '異'는 거의 필연적으로 同異比較를 나타낸다. 필자의 조사에 따르면, 여기에는 조금도 예외가 없었다. 다시 ≪論語≫와 ≪左傳≫에 사용된 모든 '異於'의 예를 보인다.[27]

(20) 吾黨之直者**異於**是. (≪論語≫<子路>)
(우리들이 강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다르오.)

(21) 我則**異於**是, 無可無不可. (≪論語≫<微子>)
(나는 곧 이들과 다르다.)

(22) 其來也不寇, 使民不嚴, **異於**他日. (≪左傳≫<襄公二十五年>)

27) ≪論語≫에는 두 차례, ≪左傳≫에는 일곱 차례가 보일 뿐이다.

(그가 올 때에 약탈을 하지 않았고, 백성들을 부림에 엄하지도 않은 것이 다른 날과는 달랐다.)

(23) 此二君者, **異於**子干. (≪左傳≫<昭公十三年>)
(이들 두 제후는 子干과 달랐다)

(24) 芻蕘者**異於**他日, 敢請之. (≪左傳≫< 昭公十三年>)
(땔감을 하던 사람은 다른 날과 달리, 감히 그들을 저지하도록 청했습니다.)

(25) 人**異於**是. (≪左傳≫< 昭公二十二年>)
(사람은 이와 다르다)

(26) 郢**異於**他子. (≪左傳≫<哀公二年>)
(郢은 다른 아들과 다르다.)

(27) 微子, 則不及此. 然君異於器, 不可以二. (≪左傳≫< 哀公六年>)
(그대가 없었더라면, 여기에 이르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라의 제후는 그릇과 달라서, 둘이 있을 수 없다.)

(28) 臣有疾, 異於人. (≪左傳≫< 哀公二十五年>)
(신은 병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위의 예에서 보듯이, ≪論語≫와 ≪左傳≫에 사용된 '異於'의 경우도 ≪孟子≫의 경우에서와 똑같이 모두 '…와 다르다'로 해석되며, 여기에서도 조금의 예외를 보이지 않는다.[28] 이러한 상황은 ≪孟子≫와 거의 동시대의 저작으로 간주되는 ≪國語≫, ≪莊子≫, ≪荀子≫ 등에서도 전혀 예외가 없었다.[29] 뿐만 아니라, 유가경전과 같은 先秦散文을 규범문장으로 삼은

28) ≪論語≫에는 '異於'와 비슷한 경우로 '於' 대신 '乎'가 쓰인 예문이 세 차례 더 보인다. 그러나 이들도 모두 예외없이 '-와 다르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1) 夫子之求之也, 其諸異乎人之求之與. (≪論語≫< 學而>)(선생님께서 그러한 것을 구하심은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것을 구한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2) 異乎三子者之撰. (≪論語≫<先進>) (저는 세 사람의 진술과 다릅니다.)
3) 異乎吾所聞. (≪論語≫<子張>) (내가 들은 바와는 다르다.)

29) ≪맹자≫의 제작연대를 BC 310년 전후로 보고, 이를 전후하여 편찬된 문헌에 사용된 '異於'를 조사하였으나, '異於'는 ≪論語≫(BC 450)에 2회, ≪左傳≫(BC 410)에 7회, ≪國語≫(BC 350)는 없음, ≪莊子≫(BC 300)에 9회, ≪荀子≫(BC 280)에 5회가 출현할 뿐이다. 이 가운데에서 '異於'가 '…을 이상히 여기다'로 해석되는 경우는 하나도 없었다. 오직 '…와 다르다'는 의미로 사용

후대 문장가들의 문언작품에서도 이러한 규칙은 철저하게 지켜졌다. 다음은 唐宋 이후의 문언작품에 보이는 ‘異於’의 예이다.

(29) 奇兵有**異於**仁義, 王道迂闊而莫爲. (唐 李華 <弔古戰場文>)
奇兵은 仁義와 다름이 있으니, 왕도는 멀다하여 하는 이가 없었다.
(30) 樂富貴而悲貧賤, 我豈**異於**人哉? (唐 韓愈 <圬者王承福傳>)
(부귀를 즐기고 빈천을 싫어하는 데에, 내가 어찌 남들과 다르겠는가?)
(31) 然是物也, 負其**異於**衆也. (唐 韓愈 <應科目時與人書>)
(그러나 이 괴물은 자신이 무리들과 다르다는 것을 자부하였다.)
(32) 吾惡知其今不**異於**古所云邪? (唐 韓愈 <送董邵南序>)
(내 어찌 그곳의 지금이 옛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겠는가?)
(33) 而衆人之中, 有聖賢者, 固亦生且死於其間, 而獨**異於**草木鳥獸衆人者, 雖死而不朽, 愈遠而彌存也. (宋 歐陽修 <送徐無黨南歸序>)
(그러나 뭇사람들 가운데 성현이라는 사람들은 진실로 또한 그 가운데에서 살고 죽지만, 유독 초목과 조수와 뭇사람들과 다른 것은 비록 죽더라도 썩지 아니하며, 세월이 멀어질수록 더욱 살아남기 때문이다.)
(34) 今天下之絶蹤詭觀, 何以**異於**昔? (馬子才 <子長遊贈蓋邦式>)
(이제 천하의 끊어진 자취와 기이한 모습이 어찌 옛날과 (이토록) 다른가?)
(35) 顔淵嘿然而不見其所能, 若無以**異於**衆人者, 而夫子亟稱之. (宋 蘇軾 <荀卿論>)
(안연은 조용히 있으면서 그의 잘하는 바를 보이지 않은 것이, 뭇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았으나, 공자는 자주 그를 칭찬하였다.)
(36) 何以**異於**是? (明 王守仁 <尊經閣記>)
(어찌 이와 다르겠는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唐宋 이후의 文言 작품에서도 ‘異於’는 모두 예외 없이 ‘…와 다르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을 뿐이다. 唐宋 이후의 문언작품은 내용은 물론, 그 문체까지도 철저하게 先秦散文, 특히 儒家經典을 규

되었을 뿐이다.

범으로 삼은 일종의 모방산문이라는 점에서, 당송 이후의 문언작품이 선진산문의 어법규칙과 궤를 같이 할 것임은 너무나 당연하여 이러한 사실을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고 여길는지 모르나, 역으로 그들이 '異於'의 쓰임에 이처럼 예외를 두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異於'가 '…와 다르다'는 의미 이외의 다른 경우로 해석될 여지가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상의 모든 예로 보면, '異'가 '怪'로 해석되는 데는 적어도 그 후면에 개사 '於'가 사용되지 않은 경우라는 제약이 따르며, '於'가 후행하는 경우는 예외 없이 '…와 다르다'로 해석되는 것이 통례인 것이다. 아울러 '異' 뒤에 개사 '於'가 쓰인 경우에서 어법상 '異'가 동사로 쓰인 예가 없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無' 또한 금지부사로 여겨져야 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孟子》의 "王無異於百姓之以王爲愛也."의 경우에만 '異於'를 '…을 괴이하게 여기다'로 해석하는 것은 분명 고대한어의 보편적 언어질서를 벗어나는 것이다.

Ⅳ. '無'의 詞性에 대한 검토와 앞뒤의 의미 맥락

앞에서 우리는 비록 '異'가 同異의 '異'로 해석되어야 한다고는 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異'를 '怪'로 여기는 전통적인 견해가 완전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는 '異'를 '怪'의 동의어로 여기는 경우와 同異의 '異'로 여기는 견해 가운데에서 어느 것이 더욱 합리성을 가지며, 孟子의 의중을 보다 정확하게 전달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구절의 전체적인 의미는 '異於'를 포함하여, 앞의 '無'와 긴밀하게 관련되므로, 먼저 '無'의 개념부터 명확히 해두는 것이 유용하리라 생각된다.

'異, 怪也'라는 전통적 견해를 인정한다고 해도, '無'를 금지부사로 여기는 기존의 견해는 재고되어야 할 것 같다. 왜냐하면, 앞뒤를 보아 '無'를 금지부사로 여겨야 필요성은 여전히 제기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초기의 주석서에서도 ‘無’를 금지부사로 여겨야 할 필요성은 제기되지 않는다. 다만 후대로 오면서 금지부사로 간주한 경향이 역력해 보인다.

이에 대한 논거는 趙岐와 登林의 해석에서 찾아질 수 있다. 趙岐는 “孟子言無怪百姓謂王愛財也. 見王以小易大故也.[30]라고 하였으니, ‘無’는 ‘없다’로 해석하는 것이 언어논리에 적합하고, 登林 또한 ”孟子難之曰, 王無怪乎百姓之以王爲愛也.“[31]이라고 하였으니, 역시 ‘無’를 ‘없다’로 해석하는 것이 마땅해 보인다. 이 외에 朱熹의 集注 또한 ‘異’를 ‘怪’로 풀이하였으나, ‘無’를 금지부사로 여겨야 한다는 견해는 표명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異, 怪也’라는 전통적인 견해를 존중하여 “王無異於百姓之以王爲愛也.”를 또 달리 해석한다면, “왕은 백성들이 왕을 인색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 이상히 여길 것이 없습니다.”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無’를 금지부사로 여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통적인 견해를 부정해가면서까지 이를 굳이 同異의 ‘異’로 여겨 ‘다르다’는 개념으로 풀이할 필요가 있느냐는 견해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고대한어의 어법규칙을 존중하여 “王無異於百姓之以王爲愛也.”를 “왕은 백성들이 왕을 인색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 이상히 여길 것이 없습니다.”라는 해석이 의미와 문맥, 어법적인 측면에서 허용될 수 있는 해석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해석 또한 분명히 ‘異於’의 통상적인 쓰임을 벗어나고 있다는 점과 孟子가 말하려던 의중 — 제선왕에 대한 비판의 의미를 전달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王無異於百姓之以王爲愛也.”는 여전히 ‘왕의 행위는 백성들이 왕을 인색하다고 하는 바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로 해석하는 것

30) “孟子가 ‘(王은) 百姓들이 王이 재물을 아낀다고 하는 것을 괴이하게 여길 것이 없다’고 말하였다. 왕이 작은 것으로써 큰 것을 바꾸었기 때문이다.”(淸阮元校刻 ≪十三經注疏≫(孟子注疏解經 孫奭疏), 北京: 中華書局, 1987年第4次印刷(1980年 第1版), 2670쪽)

31) “맹자가 비난하며 말하였다. 왕께서는 백성들이 왕을 인색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 이상하게 여길 것이 없습니다.”(明 鄧林著, ≪四書補註備旨≫(東昌書業德藏板), 中華民國元年重刊)

이 온당하다는 것이다.

"王無異於百姓之以王爲愛也"를 "…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로 해석하는 전통적인 견해는, 분명 앞뒤 문맥을 지나치게 고려한 나머지 한문의 언어규칙을 홀시한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 성향이 강하며, 고대한어의 언어질서를 부분적으로 파괴하고 있다는 점에서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원문의 앞뒤 문맥에 천착하면, "王無異於百姓之以王爲愛也"는 꼭 '異'를 '괴이하다(怪)'로 해석하고 싶다는 것이다. 그러나 언어란 특정한 의미로 해석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고유의 규칙과 제약이 있으며, 임의의 해석은 그러한 내적 질서를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王無異於百姓之以王爲愛也"를 "왕의 행위는 백성들이 왕을 인색하다고 하는 바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로 해석하는 본고에서의 새로운 견해가, 전통적인 해석에 익숙해있는 상황에서는, 다소 어쩌면 매우 어색하게 느껴질지 모르나, 분명히 원문의 앞뒤 의미 맥락을 거스르지 않으며, 또한 孟子의 의중을 훼손시키지도 않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가치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

우리가 이러한 견해에 입각하면, 원문의 상황맥락은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소가 벌벌 떨 듯이 죄 없이 죽을 곳으로 가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여, 그래서 양으로써 그것을 바꾸라고 하였다."는 齊宣王의 말에 대해, 孟子는 "작은 것으로 큰 것을 바꾸었으니, 백성들이 왕을 인색하다고 하는 것은 당연하며, 그런 측면에서 왕의 행위는 백성들이 인색하다고 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다. 곧 齊宣王의 의중을 알 바 없었던 백성들은 작은 것[양]으로 큰 것[소]을 바꾼 왕의 행위를 두고 인색하다고 할 수 있었고, 齊宣王의 그러한 행위는 백성들이 '인색하다'고 한 말과 실제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 孟子의 견해인 것이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王'이 두 번 사용되었다는 점과 齊宣王에 대한 孟子의 또 다른 비판이 깔려 있다는 점이다. 두 차례의 '王'에서 앞에 쓰인 '王'은 '양으로써 소를 바꾼 王의 행위'를 뜻하고, 뒤의

‘王’은 ‘행위자로서의 王’을 의미한다

“王無異於百姓之以王爲愛也” 구절에 맹자의 또 다른 비판이 깔려 있다는 것은, 제선왕이 대견스러워하는 곧, 소를 불쌍하게 여겨 양으로 바꾼 것에 대해 스스로 대견스러워하는 행위에 대한 비판이다. 제선왕은 소가 벌벌 떨면서 죽을 곳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고 소를 불쌍히 여긴 나머지 양으로 바꾸라고 하고는 스스로 잘한 것으로 대견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그러나 제선왕의 그런 마음을 알지 못했던 백성들은 재물로서 덩치가 큰 소를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양으로 바꾸었다고 생각하고는 제선왕이 재물에 인색하다고 비난하였던 것이다. 이 두 상황을 두고 맹자는 제선왕을 보고, 양으로 소를 바꾼 왕의 행위나, 왕의 속마음을 모르고 재물에 인색하다고 비난한 백성들의 행위는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다. 즉, 백성들의 행위도 옳지 못하지만, 왕의 행위도 그리 내세울 것이 없으니, 이 두 행위는 서로 다를 바가 없는 오십보백보라는 것이다. 말하자면, 맹자의 이 말은 왕이 양으로 소를 바꾸고 스스로 대견스러워하는 그 행위가 결코 자랑할 만한 것이 못된다는 것을 비판하는 동시에, 백성들이 왕을 두고 인색하다고 한 것은 소 한 마리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닐 것임을 암묵적으로 일깨우고 있는 것이다.

이 구절이 제선왕에 대한 비판이라는 것은 이 구절 뒤에 나오는 “牛羊何擇焉?”이라는 말을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곧, 제선왕이 소가 죽는 것을 측은히 여겼다면, 양 또한 불쌍하게 여겨야 할 것인 바, 그렇다면 소와 양을 어떻게 가렸느냐고 물은 것이다.

이는 바로 앞에서 孟子가 “百姓皆以王爲愛也, 臣固知王之不忍也.”라고는 하였으나, 또한 뒤에 이어지는 孟子의 말 “王若隱其無罪而就死地, 則牛羊何擇焉?”(소와 양을 어떻게 가리셨습니까?”)이라는 구절을 보면, “王無異於百姓之以王爲愛也.”는 “백성들의 비난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로 齊宣王을 안심시키려는 의도보다, 백성들이 왕을 두고 인색하다고 말하는 것도 잘못 되었지만, 왕 또한 그리 대견스러워할 만큼 내세울 일은 아니라는 비판을 담은 의도적인 말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러한 점에서 "王無異於百姓之以王爲愛也"는 "왕의 행위는 백성들이 왕을 인색하다고 하는 바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로 해석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Ⅴ. 맺는 말

"王無異於百姓之以王爲愛也"는 전통적으로 "왕께서는 백성들이 왕을 인색하다고 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라는 권유성 금지문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원문의 통사구조 및 보편적 언어질서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異'를 '怪'로 해석해야 할 당위성이 희박하다는 점, '異'와 '於'의 유기적 결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 '異'에 후행하는 介詞 '於'의 존재를 홀시하였다는 점, '無'를 금지부사로 여겼다는 점, 先秦散文에서 '異於'는 '…와 다르다'는 同異比較를 나타내는 것이 통례임에도 굳이 '異'를 동사의 활용으로 여겼다는 점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異於'의 통상적인 쓰임을 고려하여 "王無異於百姓之以王爲愛也."를 "왕의 행위는 백성들이 왕을 인색하다고 하는 바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로 해석하고, 그 근거로 《孟子》에 사용된 '異' 및 '異於'의 쓰임과, 《孟子》와 동시대의 문헌으로 간주되는 《論語》, 《左傳》, 《國語》, 《莊子》, 《荀子》 등에 사용된 '異於'의 용례를 함께 살펴보았다.

그 결과 '異'가 '怪'(이상하다)라는 개념으로 사용된 경우는 모두 개사 '於'를 수반하지 않았고, 반면에 '異於'는 예외 없이 모두 '…와 다르다'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말하자면, '異' 뒤에 介詞 '於'가 쓰이고 있다는 것은 바로 '異'가 '…와 다르다'는 개념 이외의 뜻으로 쓰일 수 있다는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으로, 이는 곧 언어의 重義性에 대한 제약의 한 방식으로 여겨진다. 말하자면, 언어가 갖는 보편적 질서로의 約定俗成인 것이다.

‘異於’에 대한 이러한 約定은 唐宋 이후의 文言 작품에서도 그대로 지켜졌다. 唐宋 이후의 文言 작품에 이르기까지 ‘異於의 쓰임에 예외가 없었다는 것은, 바로 ‘異於’는 ‘…와 다르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상례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王無異於百姓之以王爲愛也.”에서만 ‘異於’를 ‘…을/대하여 이상하게 여기다’로 해석하는 것은, 문맥에 지나치게 천착한 나머지, 한문의 언어규칙을 도외시한 인위적인 의도이며, 견강부회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것이다.

撰述者가 孟子의 의중을 어디에 두고 이 말을 기록했는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을/대하여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라는 견해와 “…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라는 견해에서 어느 것이 옳을지는 단정하기 어려우나, 원문의 표기로 보면, 전자로의 해석은 분명 파격적이며, 후자로 해석되어야 온당한 것이다.

특별히 ‘無’를 금지부사로 여기지 않고 ‘異’를 ‘怪’로 여겨는 전통적인 해석을 수용한다고 해도, 우리가 孟子의 의중을 이해함에 있어서 전통적인 견해보다는 본고에서 제시한 새로운 해석이 보다 많은 의미를 내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齊宣王은 소를 양으로 바꾸고 스스로 대견스러워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소를 양으로 바꾼 왕의 행위는 표면적으로 백성들이 王을 인색하다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으니, 그리 대견스러워 할 것이 못된다는 것이 孟子의 의중인 것이다.

이러한 맹자의 비판의식을 감안한다면, 우리의 새로운 해석은 더욱 합리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고대한어의 언어규칙을 중시한다면, “王無異於百姓之以王爲愛也”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은 상례를 벗어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도 원문 “王無異於百姓之以王爲愛也.”은 “왕(의 행위)은 백성들이 왕을 인색하다고 하는 바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로 해석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것이다.

<參考文獻>

《孟子集註大全》, 《經書》(影印本), 서울: 成均館大學校大同文化硏究院, 1970.
《四書栗谷諺解》, 京畿: 弘文閣(影印), 1984年.
孟子諺解(奎1886) 宣祖(朝鮮)命撰.
金赫濟 校閱, 《原本孟子集註》, 서울: 明文堂, 1979.
李範圭 著作, 《맹자언해 諺解孟子(上)》, 京城府: 文言社, 昭和七年.
車柱環, 《東洋古典③ 孟子(上)》, 서울: 明文堂, 1975年六版(1970年初版).
李家源 譯解, 《論語 孟子》, 서울: 東西文化社, 1976.
李民樹 譯註, 《新譯 孟子(상)》, 서울: 瑞文堂, 1978년4刷(1974初版).
韓相甲 譯, 《朱熹 / 孟子·大學 — 四書集註II》, 서울: 三省出版社, 1977年8版發行(1976年初版)
洪寅杓 編著, 《孟子 대학고전총서⑧》,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2.
中文大辭典編纂委員會(林尹 高明主編), 《中文大辭典》, 臺北: 華岡出版有限公司, 中華民國68年第4版(中華民國62年初版)
明 鄧林著, 《四書補註備旨》(東昌書業德藏板), 中華民國元年重刊
淸阮元校刻, 《十三經注疏》(孟子注疏解經 孫奭疏), 北京: 中華書局, 1987年第4次印刷(1980年第1版)
十三經淸人注疏 《孟子正義》, 焦循撰, 沈文倬點校, 北京: 中華書局, 1987.
淸 王夫之, 《讀四書大全說》, 北京: 中華書局, 1989年2刷 (1975年1版)
張兆瑢·沈元起編譯 《白話孟子讀本》, 上海: 廣益書局, 民國三十五年.
楊伯峻譯注, 《孟子譯注》, 北京: 中華書局, 1960.
楊伯峻, 《孟子導讀》, 成都: 巴蜀書社, 1992年第三次印刷(1987年第一版)
謝氷瑩·李鎏·劉正浩·邱燮友編譯, 《新譯四書讀本》, 臺北: 三民書局, 民國六十七年.
高步瀛集解·吳闓生評點, 《重訂孟子文法讀本》, 臺北: 學海出版社, 民國七

十年.
倪志僩, ≪論孟虛字集釋≫,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民國70年.
呂祖謙, ≪增批輯注東萊博議註釋≫, 雙芙蓉館藏本.
楊樹達, ≪詞詮≫,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6年.
裴學海, ≪古書虛字集釋≫, 臺北: 泰盛書局, 民國66年.
內野熊一郎, 新譯漢文大系4≪孟子≫, 東京: 明治書院, 昭和59年35版(昭和37年初版)
韓學重, <古代漢語 '見於'와 관련한 介詞 '於'의 특수용법>, ≪中國言語研究≫第17輯, 韓國中國言語學會, 2003.6.30.
韓學重, <≪孟子≫"無以則王乎" 新解>, ≪中國學論叢≫第17輯, 韓國中國文化學會, 2004.6.30.

<中文提要>

≪孟子≫<梁惠王章句上>「齊桓晉文」章"王無異於百姓之以王爲愛也"句, 對此, 傳統見解皆譯爲"王不要怪百姓們說王吝嗇.", 它就是所謂勸諭性禁止句. 而有關于原文結構, 此種解釋可能是由于忽視'異'後面的'於'的存在以及'異'和'於'的有機的結合的結果. 并且'異於'的'異'并沒有活用爲動詞, 先秦散文中, '異於'一般只能表示同異比較而已. 因此, 在"王無異於百姓之以王爲愛也."句中, 把'異'釋爲'怪'缺乏充分的理由.

在本文中考慮到'異於'的一般用法, 主張把"王無異於百姓之以王爲愛也"解釋爲"王實際表現和老百姓所說的王吝嗇沒有差異.", 爲了加以旁證, 本文中考察過≪孟子≫和其同時代的作品, 如≪論語≫≪左傳≫≪國語≫≪莊子≫≪荀子≫等中的'異於'的用例.

結果, '異'用爲'怪'概念的例子都沒帶'於', 相反'異於'全都用爲'和…不一樣'的意思. 這能說明介詞'於'用在'異'後面的這一事實, 就意味着此'異'不能釋爲'怪'的概念. 這種現象就是語言上常有的對多義性的一種制約方式, 又是約定俗成

語言本來是如此徹底地以有機的結合體而存在的.

對'異於'的這些約定一直到唐宋以後的文言作品都沒有例外. 唐宋以來的文言作品的這些情況, 同樣證明'異於'只是用作'和…不一樣'的概念, 儘管如此, 獨在"王無異於百姓之以王爲愛也"句中把 異 釋爲 怪, 這可能是拘泥于意味脈絡而忽略了古漢語的語法規則, 似乎牽强. 從原文的結構看來, '異於'的 異 應該是解釋爲同異的'異'.

如果"王無異於百姓之以王爲愛也"的傳統見解是對的, 那原句在撰述或流傳過程中可能有錯誤, 我們無法確定孟子要說的是"王不要怪百姓們說王吝嗇."還是"王和百姓們所說王吝嗇的情況沒有差異", 可是"王無異於百姓之以王爲愛也."這一句結構上只能解釋爲後者罷了.

주제어 : 異, 異於, 古代漢語, 結構, 語法規則, 制約, 有機的結合, 同異比較, 約定俗成, 言語秩序, 意味脈絡, 批判

KCI